



OKNA Newsletter

Overseas Korean Nurses Association

SEPTEMBER 8, 2016

WWW.GKNA.ORG / OKNANURSE@GMAIL.COM

VOLUME 3

회장 인사말씀



2016년 5월 18-21일 재외한인간호사회에서는 10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에센에서 열린 파독간호사 50주년 기념행사를 축하하고 자리를 빛내기 위하여 미 전지역과 세계에 흩어져 있던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텍사스, 콜로라도, 하와이, 그리고 호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에서 참석하신 회원들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다음날 에센 행사장으로 이동하여 재외한인간호사회 지역협회회의를 기점으로 학술대회와 기념 행사를 무사히 잘 마무리 하고 돌아오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55년 만에 어릴적 친구를 처음 만나신 분들, 옛 스승을 30년이 지나서 처음 만났고, 33년 전 사우디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 만났다고 눈물어린 감회를 나누던 회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네트워크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에 한층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특별히 재외한인간호사회의 미션과 비전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을 때와, 앞으로의 차세대 영입을 위한 비전을 나눌 때는 참가자 모두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년 하와이에서 열리는 총회를 기약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각자 소속된 지역으로 떠나는 모습들에 흐뭇함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재외한인간호사회가 준비하고 주관한 기념학술 대회에 글로벌 간호 20 century 라는 제목하에 수고해 주신 윤행자 독일 13대 회장님, LA County Mental Health 에서 Regional Director 김영숙 선생님, 시카고의 마취간호사이신 김희숙 선생님, 그리고 기유리나 하와이 대학의 교수님, 모두에게 다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해외에 나와서 당당히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일하시면서 얻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한 학술대회 발표때는 참가자 전원의 만족도가 한껏 분위기를 들뜨게 해주었으며, 참석자 모두에게 매우 유익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재외한인간호사회 회원들은 이 행사를 통해 해외에 나와있는 한인간호사들의 역사의 한 발자취를 밟은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또 해외의 한인간호사로서의 긍지를 가짐과 함께 진한 감동을 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한인간호사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할 때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강한 자부심을 얻어 앞으로 재외한인간호사회 모든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내년 하와이 총회가 기다려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수고하신 우리 임원들께도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도움으로 우리가 또 한 번 해냈습니다. 바로 Synergetic outcome 을 보여주신 여러분이 바로 재외한인간호사의 롤 모델이 되고 있음을 자부심으로 간직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OKNA 회원들 모두에게 늘 끊이지 않는 은혜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6년 8월에
재외한인간호사회 회장 모니카 권

회장: 권모니카
President

수석부회장: 조명숙
Vice-president 1

캐서린조: 김영초
Vice president 2

사무총장: 안마리
Secretary General

총무: 김혜미
General Affairs

서기: 전영선
Secretary

재무부장: 박애랑
Treasure

봉사부장: 한제니
Outreach and Service manager

감사: 조상문
auditor 1

감사: 박선자
Auditor 2

발행인: 회장: 모니카권
편집인: 사무총장: 안마리,
총무: 김혜미

각지역 회장 및
OKNA 당연직 부회장

- Arizona Korean Nurses Association
아리조나 한인간호사협회: 손성미
- Australia Korean Nurses Association
호주한인간호사협회-시드니: 김인자
- Global Korean Nurses Foundation
호주 멜번 한인간호사협회: 이을근
- 국제한인간호재단: 홍외생
- Houston Korean Nurses Association
휴스톤 한인간호사협회: 김숙원
- Korea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of NCA
북가주 한인간호사협회: 송귀원
- Korea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of SCA
남가주 한인간호사협회: 김혜자
- Korean Nurses Association of
Chicago
재미시카고 한인간호사협회: 이화연
www.knachicago.org
- Korean Nurses Association
Sacramento
새크라멘토 한인간호협회: 장희숙
- New England Korean Nurses
Association
뉴잉글랜드 한인간호사협회: 최화자
- Northern Texas Korean Nurses
Association
북텍사스 한인간호사협회: 유성
www.ntkna.org
- The Greater New York Korean
Nurses Association
대뉴욕 한인간호사협회: 조명숙
<http://www.nykna.org>
- 사단법인 재독한인간호협회: 윤행자

파독 50 주년 기념행사 보고

독일에서의 지역협회 회의

OKNA 지역협회 회의가 지역 협회장 이하 행사를 위해 참석한 전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5 월 19 일 2016 년 뒤셀도르프 호텔에서 열렸다. 임원 소개에 앞서, 지역협회 소개와 회장단 인사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으며, 특히 재외한인간호사회의 Mission 과 Vision 을 알리는 시간에는, 참석한 전원이 OKNA 의 지속적 발전과 차세대 영입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학술대회



5 월 21 일 2016 년 파독 50 주년 행사 첫날에는, 재외한인간호사회 주최의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Challenge of Nursing in 21st century'를 주제로 윤행자 독일간호협회 회장의 독일 간호역사를 시작으로 해 이어서 4 명의 강사들의 이론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술대회는 모든 이에게 공감을 주고 현장 실습에 도움이 되었다며 참석자 모두가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사로는: LA County Mental Health regional Director 로 수고하시는 김영숙 강사의 Invisible made visible,

Psychiatric Mental health in LA. 시카고의 김희숙 마취간호사의 Perspective C, RNA in the United State, 하와이 간호대학의 부교수이신 기유리나 교수의 Challenges of Korean American Nursing in the 21st Century, 그리고 모니카권 재외한인간호사 회장의 Globalization in Nursing Care 로 진행 되었다. 학술대회는 4 시간의 Continuing Education Unit (CEU) 도 제공되었다 (2016 년 4 월, OKNA 는 California BRN 으로부터 CEU Provider 로 인정됨). 학술대회에 이어 패널 토의에는 많은 회원들의 궁금사항을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전체적으로 유용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알게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학술대회 Handout 은 OKNA webpage:www.gkna.org 자료실에서 찾을수 있다.

독일행사 보고 및 야유회

5 월 독일행사 후 평가와 보고회 겸 야유회를 7 월 9 일 2016 년 Long Beach El Dorado East Regional Park 에서 30 여 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 행사에서 이번 독일행사를 통해 회원간에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으며, 간호사들간의 전문인으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한껏 고조 시켰다. 또한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한인간호사들간에 Net-Work 을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일하는것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OKNA 를 근거로 세계간호단체가 하나로 되는 중심의 역할이 있어서 좋다는 평이었다. 내년 하와이 총회를 벌써부터 기대하며 참여여부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야유회에서는

특별(평생)회원

2016 년도 특별(평생)회원예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깊은 감사 드립니다

Name State

김영숙 LA
이순자 NY
이말희 CHICAGO
안정옥 LA
김혜미 LA
김민영 NY
김정숙 NY
김경희 SD
박현숙 NY
조영숙 NY
박상희 NY
양경숙 NCAL
기유리나 HI
김인자 AUS
이성자 AUS
노애숙 AUS
양진영 AUS
정경희 AUS
최선옥 NCAL
노성순 NCAL
유성옥 NY
김인희 LA
최덕순 TX (명예회원)
박선자 NY
방태순 NY
좌인순 NY
주미숙 NY
장희숙 Sacramento

OKNA 의 특별(평생)회비는
전세계 한인간호사들의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과 상호발전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 새로운
지역의 한인간호협회 설립을
지원하고 차세대 간호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쓰여지고
있다. 특별(평생)회비를 지불한
평생회원에게는 각종 행사
참가나 협회활동시 특별회원
으로서의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행사를 위해 전 회원들을 위한 바베큐를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한혜숙 선생님 부부께
진심어린 감사를 표했다. 11 시에 시작한 행사가
1 시 30 분에 끝날 때에도 모두 떠날 줄을 모르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사 참석 후의
소견발표 시간에는, 참석 전원이 많은 긍정적인
소감을 나누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시작한 소감과 함께 간호사들도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특별히
독일에서의 한국 간호사로서의 애국심과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하는 계기가
되어서 기뻐했다고도 했다. 한국간호사의 희생, 봉사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하는 분도 있었고, 독일의
거품없는 성실함에 감탄했다고도 했다. 이번 참석으로, 각 개인 간호사들로부터 많은 배울 점을 터득하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면서 50 주년 역사적인 순간이 좋았으며, 이번 기회에 많은 견문을 넓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아서 행사 참석의 기쁨을 나누었다.



말라위 장학지원 사업 소개



재외한인간호사회 국제사회봉사부는 2014 년 부터 아프리카 말라위
간호대학생 장학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후원자들의 꾸준한
후원의 결실로 내년에는 2 명의 현지인 정규 간호사를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 Masida Nkhoma, Abigail Chimbama 두 학생에게 2017 년도
전학비와 기숙사비를 포함한 장학기금을 2016 년 5 월 아프리카
말라위를 방문하는 이한나 선교사편에 전달하였다. Masida 와
Abigail 간호사가 말라위 간호계의 리더가 되어 척박한 말라위의 건강사업
실천의 주역이 되리라는 믿으며 협조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관심과
사랑의 실천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후원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들은 OKNAnurse@gmail.com 으로 연락하시기
바란다.

지역협회소식

대뉴욕간호협회



4 월 23 일 제 10 회 학술대회를 80 여 명의 현직
간호사들이 참석 하였으며, 네트워킹과 새로운 지식을
얻는 시간 이었다. 협회에서 아침 점심 그리고 다과와 CE
4.81 을 제공하였다. 학술대회는 Empowering Nurses
through Evidence-Based Practice and Research 라는
주제 아래 Overview of Thyroid and Parathyroid
Disorders, Diabetes Management Updates,
Myocardial Infarction Treatment and Nursing

재외한인간호사회
2016-2017 사업계획

2016 년 10 월
콜로라도 한인간호협회 창립
총회 지원

2017 년 2 월
차세대 간호사 리더십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대회 및 세미나
개최

2017 년 10 월
재외한인간호사회 제 4 회 총회
및 학술대회 하와이 개최



Management, Informed Consent and Legal Issues 였다. 새로운 시도로 강의 자료를 PDF 파일을 만들어 사전 등록하신 분들에게 이메일로 학술대회 전에 미리 보내어 스마트폰이나 iPad 로 다운로드 받아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6 월 11 일 토요일 Alley Pond Park 에서 90 여 명의 회원과 가족이 함께한 야유회에는 신입회원들이 많이 가입해주셔서 회원간 네트워킹 도모라는 취지에 걸맞는 행사였었다. (NY 조명숙 회장)

호주간호협회



5 월 파독간호사 기념행사에서는 호주한인간호협회의 평생회비 전달식이 있었다.

사진은 호주한인간호사협회 평생회비전달식 기념 사진.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에 산재해있는 한인간호사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이루며, 뜻깊은 행사에 참가할 기회를 만들어준 재외한인간호사회의 역할에 감사함을 느낀다며, 자진해서 특별(평생)회원 가입에 적극 동참한 회원들도 있었다.

회원소식

이번 독일행사에 참석한 회원중에 80 대 최고령의 이종선 최초 마취간호사와 최연소 김민영(NP) 간호사는 무려 50 년의 연령차이지만 재외한인간호사의 회원으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시대의 격차를 뛰어넘고 역사의 배경은 달라도 해외의 한인 간호사란 공동체로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종선 선생님은 간호장교 출신으로 1962 년에 미국 마취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미국과 한국을 넘나들며 화려한 마취간호사로서 평생 일하셨고 1992 년에 은퇴 하시고 현재는 Preston University 에서 Preston International Group Cultural Advisor 로 봉사하고 계신다.



OKNA 초대 회장이며 소망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은 두번째 책 "그래서 삶은 아름답다"를 출간 하셨다. 출판기념 북 콘서트가 7 월 21 일(목) 오후 5 시부터 세리토스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열렸다. 본인의 삶의 이야기와 소망소사이어티를 설립하게 된 배경, 소망소사이어티를 통해 이루어 낸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그래서 삶은 아름답다라고 강조하셨다.

(각 지역협회소식을 주시면 정성껏 소식지에 올려드립니다. 전 지역의 회원들에게 소식을 알릴수 있는 계기가 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